< 2020 년 1 월 – 두번째 모임 >

광야에서 베푸신 생명 양식 (요한복음 6:1-15)

하나님 찬양 드리기 (각 순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하게 찬양하세요)

- 찬양: 오 신실하신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 **Focus: 주님을 향한 오병이어 같은 작은 헌신과 확실한 믿음은 기적의 통로가 된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요한복음 6:1-15 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말할 때 오병이어 사건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일로 간주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손에 든 연약한 지팡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한끼 식사에 불과한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빈 들에서 굶주린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구원하신) 사건과 유사합니다. 구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예수님이 큰 무리리를 먹이시고자 빌립에게 한 질문은 무엇이며, 빌립은 예수님께 어떻게 답변했나요? (5~7 절)

2. 안 아이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며 안드레는 어떤 말을 했나요? 예수님 손에 들린 오병이어는 어떻게 되었나요? (8~13 절)

적용과 나눔

1.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현실을 많이 강조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현실보다 믿음을 강조하는 편인가요?
2. 내가 주님께 드릴 오병이어는 무엇인가요?
   공동체를 위해 내 것을 나누고 베풀었을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났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 말씀 다지기

오병이어 사건은 보잘 것 없는 것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이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표적으로 전파되고 확장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준비하고, 치밀하게 따지며, 꼼꼼하게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인간적 계산과 상식으로 결코 경험할 수 없으며 오직 전능자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삶에서 기적을 보기 원하신다면,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 아이처럼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기

문제를 넘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기를,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 마음에 새기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 6:11)